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나주경찰서장의 다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권력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힘 없는 서민들은 특히 그렇다. 가진 자들은 개인 경호원 등 각종 방어수단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법을 잘 모른다. 재벌들치고 지은 죄만큼 대가 치르는 자를 봤는가.

하지만 서민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죄는 줄도 모르고 진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있는 자들은 호화찬란한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고용한다. 서민들은 어떤가. 국선변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민초들의 삶이다.

사실 민초들에게는 국가는 잊고 없는 경우도 많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고려시대에는 귀족들 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그 자리를 고스란히 꿰어 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가, 현대사회에 와서는 재

벌들이 꽃밭을 부리고 있다. 재벌들은 행정, 사법, 입법부를 모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 하겠는가.

이런 부정적 의식들을 서민들이 갖게 하는 데는 경찰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본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순사들이 그렇다. '순사 온다'는 말만 들어도 울어대던 아이가 울음을 푼 그칠 정도로 말이다.

이런 현상들이 고스란히 자유당 시대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거듭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중에는 양심적인 경찰들도 많았던 것을 안다.

그런 습성이 있었기에 민초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후 민주정부가 들

어서면서부터 점점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통을 터오는 중이라 생각된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찰이 치안복지를 전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라남도 나주경찰서다. 정경채 서장 자체가 지역을 겸비한 경찰이다.

그는 쉬는 법이 없다. 이번에는 마을별 외국인 리더와 협력네트워크를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 외국인 집단 거주 농촌 자연부락별 외국인 리더, 마을 이장, 다문화 센터, 경찰보안협

력위원회, 관할파출소 등 약 70여명이 함께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치안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한 것이다.

일명 '다(多)사랑 네트워크'다. 현재 나주지역에는 등록 외국인만 해도 2,751명(베트남 1,015, 캄보디아

350, 중국 284명 등)이다. 전체 주민의 2.4%다.

나주는 자고로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낱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와 주민 간에는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의 일탈행위들이다. 예를 들면 '밤늦은 시간에 데 지어 돌아다니면서 공포 조성하기', '상의 벗고서 문신한 모습 드러낸 상태로 거리 활보하기', '쓰레기 불법 투기하기',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부르기' 등이다. 이런 연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배척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이런 와중에 정경채 서장이 신체적으로 나신 것이다. 그야말로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면서 호흡하는 참 경찰이다.

이런 마인드 저변에는 정경채 서장의 선한지도 한 몫을 하지만 사회복지분야를 선택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나주경찰서에서의 시 작이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진정으로 살아 숨 쉬는 민중의 공권력으로 말이다.

社說

불매운동 시효가 없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의 대다수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 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시점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시점(A)이 34.9%, '일본 침략 사죄·배상 시점(B)'이 28.1%,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A+B+C)'은 76.2%로 집계됐다.

이 중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과거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B, 28.1%), 또는 사죄·배상 이후에도(C, 13.2%)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B+C, 41.3%)

은 54.2%였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세부적으로는 '일본 경제보복 철회 시점'까지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중도층과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40대 이상, 경기·인천 제외 모든 지역, 남성에서 30%대 또는 40%대의 다수로 나타났다.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30대와 20대, 경기·인천에서는 '일본 침략 사죄·배상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에서는 비록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B, 31.2%)나, 사죄·배상 이후에도(C, 25.2%)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56.4%로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제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불매운동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벌 조심'

최근 들어서 기온이 올라 말벌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피서를 떠나는 등 야외 활동이 잦아져 벌 쏘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벌 쏘임 예방법과 유사시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벌은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말벌의 경우 사람의 활동만으로도 자극을 받아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입거나 모자를 써 머리를 보호하고, 벌이 공격할 경우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독성이 강한 살충용 스프레이를 휴대하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곡이나 산을 다닐 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음료수나 과일처럼 벌이 유인될 수 있는 달콤한 음식은 가까이 두지 않고, 만약 차안에 벌이 들어왔다면 정지한 상태로 모든 창문을 열어 벌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벌이 공격할 경우, 우선 신속하게 최대한 멀리 몸을 피해야 한다. 벌의 공격은 다른 벌들에게 침입자가 있는 인상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첫 공격 후, 벌 떼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응급 처치로 가장 먼저 벌집을 제거해야 한다. 꿀벌의 경우 핀셋이나 손으로 벌집을 꺼내려 하면 독주머니가 터

져 독이 피부 안쪽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살을 밀어 내는 방식으로 벌집을 빼는 것이 좋다. 말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침을 제거하려 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벌에 쏘인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국소반응과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국소 반응은 환부에 통증과 부종이 며칠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신 알레르기 반응은 몸, 얼굴, 목에 두드러기가 나타나 입 또는 기도 가 붓는 혈관 부종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로 이어져 생명이 위협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통증과 부종을 줄이기 위해 찬물에 적신 헝겊이나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환부에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다. 환부가 간지럽다고 긁을 경우, 부종이 심해질 수 있고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쏘인 부위가 붓거나 통증 등의 국소반응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약 물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신반응이 빠르게 일어나 환자의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위급 상황이라고 즉시 119에 신고해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벌 쏘임 예방법과 벌에 쏘였을 때 증상 및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봤다. 7월 중순을 지나 8월이 다가오면서 벌에 관련된 사고들이 늘어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법과 유사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여 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자.

선진훈 / 보성1 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기술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야교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